

금주 미사 독서: 이승환 안드레아, 황지혜 레지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김보미 로사, 이승환 안드레아, 조은영 베다, 한병철 바오로	봉헌금: \$ 174 교무금: \$ 370
금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윤지희 데레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매일미사: \$5 생미사: \$110
다음 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최고은 소피아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합계 : \$ 659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금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 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다음주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 데레사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 교 / 간 식 모 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4 월 5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c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및 홈페이지 참고)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넷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파견: 116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대궐로 들어오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웬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든 그는 친구에게 동행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세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친구는 그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두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관심 없이 지내던 세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부름은 죽음을 의미하고, 첫번째 친구는 재물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두고 싶어도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친구는 친인척을 말하는데 그들도 장례식장까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친구는 사랑의 선행입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선행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라면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의 때이다.”라는 라틴어 속담이 있습니다. 늘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사고와 중병이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인생의 한 과정이며, 결실이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묵상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외침을 대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시작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갖가지 부정과 부조리, 고통과 모순, 실패 등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은 죽음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자기 헌신과 하느님께 대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에게 구원을 다시 가져다주었습니다. 사순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합시다.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까지 묵묵히 가셨는지 말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오늘의 묵상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루카 23,35).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너무도 무력하게 수난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이를 잘 묵상해 보고자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법정에 선 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입니다. 그는 살인자의 잘못된 점만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입니다. 검사와 대조적으로 살인자의 좋은 면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직업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판사입니다. 그는 법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람 자체를 판단하며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제삼자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호기심과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하느님께서 살인자를 둘러싼 시선 가운데 어떤 시선을 지니고 계시나요? 하느님께서는 검사, 변호사, 판사, 청중과는 다른 시선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마치 살인자의 어머니가 지닌 마음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따질 틈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자기 자식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죽게 된다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의 죽음을 바라시지 않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무 죄도 없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묵묵히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 공지사항

1. 부활전례 안내

3월 28일 (목) 주님 만찬 성 목요일 – Multicultural Center, 저녁 8시
3월 29일 (금) 주님 수난 성 금요일 – Multicultural Center, 저녁 8시
3월 30일 (토) 부활 성야 – Multicultural Center, 저녁 8시
3월 31일 (일) 예수 부활 대축일 – St. Paul, 오후 2시

Multicultural Center (1862 Beld Street, Madison, 박장 부근) 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신부님,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사목부회장 조남석 베드로, 행사 사목위원 심성신 알렉산드라, 김태진 하상 바오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절 계란 작업 – 3월 30일(토), 사제관, 오후 1시 – 3시, 신부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부활절 계란 만들기

3.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때 발씻김 예식이 있습니다. 발씻김 예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목회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소식

<3월 미사전 묵주기도 지향>

3월 기도지향은 새 교황님 (프란치스코 1세)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미사시작 20분전에 묵주기도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3월 8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매월 첫 주일 (4월 6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 입니다. 교무금 납부는 신자들의 의무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납부: 황성필 회계사목위원)